

조운 시조의 형식과 내용 연구

- 이미지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

이순희*

|| 차례 ||

- I. 서론
- II. 이미지즘 이론과 시조혁신론의 관련성
- III. 조운 시조에 나타난 이미지리와 상징 분석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조운 시조에 형상화되어 있는 이미지즘 시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영미 이미지즘 이론과 시조혁신론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동시에 현대시조가 문학 장르로 정착하는데 끼친 조운의 영향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미지즘은 1910년대 영미의 젊은이들에 의해 시도된 시 운동으로 전 세계의 시와 시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09년 흄에 의하여 시도된 뒤 곧이어 합류한 에즈라 파운드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에즈라 파운드를 주축으로 한 이미지스트들은 1913년 이미지스트 3원칙을 발표하였으며 1915년 에즈라 파운드가 탈퇴한 뒤 에이미 로우웰을 중심으로 이미지스트들의 6개항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미지즘이 한국에 수용된 시기는 1920년대이다. 노래 형식이던 고시조를 문학 형식인 현대시조로 재창조하기 위해 가람 이병기는 현대시조의 작법인 시조혁신론을 주창하였는데 이미지즘 이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가람 이병기가 세워 놓은 현대시조 이론을 바탕으로 조운은 작품 속에서 미적 구조를 형상화하여 현대시조가 문학 장르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했다. 미적 구조의 형상화는 이미지즘 이론의 주요한

* 경북대학교 강사

요소이면서 시조혁신론의 주요한 요소인 서경과 서정의 이미지저리를 통한 상징화 작업이었다.

본고에서는 조운 시조 속에 형상화된 이미지저리와 상징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작품을 내면세계와 외면세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내면세계는 주로 시적 화자의 심상을 소재로 한 것으로 결핍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결핍의 상징체계는 그리움의 이미지저리, 애처로움의 이미지저리로 형상화되고 있었다. 외면세계는 시적 화자가 그의 작품에 형상화시키는 서경으로 자연물 이미지저리와 유적지 이미지저리로 작품 속에 나타나 있으며 시적 화자의 결핍된 서정을 해소하는 상징체계로 작품 속에 녹아있었다.

작품 분석의 결과 영미 이미지즘 시적 특성인 회화적 이미지저리를 통해 작가의 심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울러 조운은 초기 현대시조의 대표적 인물임을 논증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조운 시조, 이미지즘, 격조의 변화, 실감실정, 이미지저리, 상징, 내면세계, 그리움 이미지저리, 애처로움 이미지저리, 외면세계, 자연물 이미지저리, 유적지 이미지저리.

1. 서론

조운은 가람 이병기가 시조 혁신에 자각을 가질 무렵¹⁾인 1925년²⁾부터 시조를 쓰기 시작했다. 따라서 조운(曹雲)은 육당, 노산, 가람과 더불어 1920년대 시조부흥운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시조를 혁신시키는 데 앞장섬으로써 우리 현대시조³⁾의 선구자로 꼽히는 인물이다.⁴⁾

1) 이병기, 「시조란 무엇인가」, 『동아일보』, 1926. 11. 24.

2) 조운, 「법성포12경」, 『조선문단』 8권, 1925. 5.

3) ‘현대시조’란 ‘고시조’의 상대 개념으로 창작 시기에 따른 분류라기보다는 작품이 지닌 특성에 따른 분류라 할 수 있다. ‘고시조’에 내포된 ‘classic(고전적인)’의 상대 개념으로 모던(modern ‘현대의’, ‘근대의’ 등을 의미. 네이버 영어 사전, 검색일 : 2014. 6. 26.)을 뜻하며 근대와 현대에 쓰인 시조를 통 털어 일컫는 말로 장르의 성격을 뜻한다.

가창의 한 형식이었던 고시조를 문학 장르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람 이병기가 이론적 체계를 세웠다면 “시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실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시조시인은 조운이다.”⁵⁾

물은 파란 빛이 언덕은 초록 빛이
그건너 모랫벌은 안개와 한빛인데
그 속에 검붉은 무지개는 철교이라 하더라

- 조운의 <한강소경>⁶⁾

이것은 곧 그림이다. 사생이다. 고시조에서는 이런 예를 얻어보기가 어렵다. 작자는 이것을 그리기 위하여 첫새벽에 한강까지 나가보았다 한다.⁷⁾

여기서 가람 이병기는, “사생(寫生)을 함에는 반드시 실물(實物)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다. 사생은 사진이 아니다. (중략) 사생할 그것을 잘 관찰하고는 항상 자기의 머리를 써야할 것이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그려야 한 아름다운 작품이 될까 하고 궁구 마련을 하여 그 어느 부분만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여도 좋다. 정말 사생의 묘미는 거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한 예술화하여 재생하는 것이다.”⁸⁾라고 하여 여기서 사생(寫生)이라 함

이민영, 『초기 현대시조 연구 : <육당.가람.노산.조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arly modern Sijo : Focusing on <Yukdang, Garam, Nosan, Joun>』,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두삼, 『현대시조의 정체성 연구 = (A) Study on the identity of modern korean sijo』,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 이은자, 『조운 시조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1.

5) 이지엽 외 1, 『조운 시조에 나타난 형식 미학』,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51권, 2014, p.3.

6) 조운,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 - 구룡폭포』, 태학사, 2000, p.109.

7) 이병기, 『시조란 무엇인가?』, 위의 신문.

8) 이병기, 『시조감상과 작법』,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71, pp.309-310.

은 서경(敍景)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서정(抒情)이 내포된 복합적 이미지임을 시사했다.

가람 이병기는 동일한 형식이 그 생산 조건의 변화에 따라 질적으로 변형된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전통 형식을 그 기원으로 환원하지 않으려 애썼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기원이 ‘노래’에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소통의 관계와 수단이 달라진 근대에서 시조는 ‘근대시’로서가 아니면 재생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⁹⁾

가람 이병기가 시조 혁신에 관심을 가질 무렵 한국에는, 1919년 황석우에 의해 이미지즘이 도입되었으며, 이장희의 작품에서 최초로 이미지즘 이론이 형상화되었다.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다’(《금성》 1924)에는 이미지의 미학이 정지용보다 앞서, 한결 세련된 양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1920년대 이어 1930년대는 이미지즘이 주류를 이루던 때였다.¹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람 이병기는 노래에서 문학으로 달라진 근대에서 시조가 살아남기 위해 이미지즘과 조화로운 접합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현대의 자유시와 시조가 그 초창기의 모습과는 달리 현저하게 발전하게 된 데는 다른 요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긴 하지만, 무엇보다 이미지즘과 모더니즘의 요소를 흡수, 소화한 데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¹¹⁾ 또한 “가람은 『문장』지를 대표하는 문인답게 서구적 모더니티를 훌륭히 실천한 시인이었다고 규정하게 된다. 그것은 전기 시조의 감각적 언어미학이 창출한 회화적 이미지의 자연공간을 통해 모더니즘(이미지즘)의

9) 차승기, 『근대문학에서의 전통 형식 재생의 문제 - 1920년대 시조부흥론을 중심으로 -』, 상허학회, 『상허학보』17권, 2006, p.10.

10) 김영익, 『백석 시문학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8, pp.10-11. 참조

11) 김양수, 이미지즘과 모더니즘 그리고 한국의 현대시, 『낙강』42호, 영남 시조문학회, 2008.12, p.68.

표용구조를 실험하고, 후기 시조에 와서는 현실적 어둠과 문명사적 질곡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므로써 황폐와 불모성을 진단하는 도시공간의 현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조운이 현대시조의 개척자라면 그의 시조에 이미지즘 시적 요소가 형상화되어 있을 것이라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조운 시조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조운에 대한 인물평을 곁들인 단편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된 연구¹³⁾이다. 둘째로는 「조운시조집」을 중심으로 한 그의 시적 형식이나 내용을 다룬 연구¹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작품 간의 영향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¹⁵⁾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외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

12) 오승희, 「가람 이병기 시조의 공간 연구」, 『비평문학』제4호, 1990.9, p.331.

13) 춘원, 「문사들의 이 모양 저 모양<5>」, 『조선문단』5호, 1925.2, p.106.

윤곤강, 「창조의 동기와 표현-조운 시조를 중심으로 하여」, 『시와 진실』, 정음사, 1948, pp.181-184.

김안서, 「시단산책 12월시평」, 『조선문단』5호, 1925.3, p.130.

이병기, 「시조란 무엇인가」, 『동아일보』, 1926.12.13.

윤곤강, 앞의 논문, p.18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88, p.282.

14) 임선복, 『근대시조집의 양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3, p.114.

문무학, 「조운론」, 『현대시조』 1990 봄호 통권 28호, pp.109-111.

오승희, 「조운론 :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제1집,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0.

조창환, 「조운론」, 『인문논총』 제1집, 아주대학교, 1990, p.87.

곽동훈, 「조운 시조 연구」, 『배달말』 16호, 배달말학회, 1991.

여동구, 『조운 시조 연구』, 청어람문고, 1993, p.103.

김종호, 「조운론」, 『한국시조작가론』, 국학자료원, 1999.

이지엽 외 1, 「조운 시조에 나타난 형식 미학」, 『비평문학』51권, 한국비평문학회, 2014.

15) 김현선, 「조운 시조의 전통과 의의」, 『시조시학』1994 상반기호, 동학사, pp.8-23.

조운경, 「현대시조의 형성 배경과 형상성-가람과 조운 시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

운 시조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여 학위 논문¹⁶⁾도 다수 나왔다. 그러나 조운의 시조 작품 연구에서 이미지즘 시와의 영향관계를 다룬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운 시조 작품에 형상화된 이미지즘 시적 특성을 고구해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근본적으로 소통의 관계와 수단이 달라진 근대기에 시조가 ‘근대시’로서 재창하기 위해 영미의 이미지즘 이론을 시조 창작에 접합하였으며 그러한 이론이 조운의 시조에 형상화되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II. 이미지즘 이론과 시조혁신론의 관련성

이미지즘은 1909년부터 1917년까지에 이르는 미국과 영국의 젊은 시인들의 새로운 시 운동이다.¹⁷⁾ 192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이미지즘은 회화성을 강조한 일명 ‘에이미지즘’¹⁸⁾이라고도 하는 후기 이미지즘이며 1930년

이론연구』28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p.4.

- 16) 조윤경, 『가람과 조운 시조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7.
 김종호, 『조운 시조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6.
 정영애, 『조운 시조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1.
 정수자, 『조운 시조의 미적 특질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1.
 조연화, 『조운 시조 연구』,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주석, 『조운시조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4.
 우은진, 『조운 시조의 텍스트성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9.
 오봉옥, 『조운 시조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9.
 김중술, 『조운 시조 연구』, 고려대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선화, 『조운 시조 연구』, 한성대 석사학위논문, 2010.
 최수경, 『조운 시조의 교육적 가치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은자, 『조운 시조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7) 김제근, 『이미지즘 연구』, 경일 인체소, 1973. p.10.
- 18) “에이미지스트들(Amygists)”, “에이미지즘(Amygism)”이라 호칭은 파운드스가 로우웰이

대에 한국에 들어온 이미지즘은 파운드에 의해 시도된 전기 이미지즘이다.

전기 이미지즘은 1909년에서 1914년까지로 에즈라 파운드가 주도한 시기이다. 1913년 3월호의 『시와 시론(詩論)』에 「*imagisme*」이라는 제목으로 파운드를 주축으로 하는 이미지스트들이 지향하는 시의 원칙을 정리하여 발표¹⁹⁾했다. 여기서 “파운드가 시를 멜로포에아(음악시), 파노포에아(회화시), 로고포에아(논리시)로 분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언어의 3요소인 이미지와 리듬 그리고 의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가 시간적 미학에서 공간미학으로 대체된 배경은 현대시가 이미지의 중층구조인 복합적 이미지로 구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의 중층구조는 한마디로 조형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조형성은 입체성을 수반하게 되고 입체적 조형적 존재의 형상화를 의미하게 된다.”²⁰⁾

후기 이미지즘은 1915년 ~ 1917년까지로 에이미 로웰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동²¹⁾이다. 1915년 『이미지스트 시인 선집』(*Some Imagist Poets*)의 발간을 앞두고 파운드와 에이미 로우웰의 불화로 파운드는 탈퇴를 하게 되고 이미지즘 운동의 지도자는 에이미 로우웰이 된다. 에이미 로우웰은 『이미지스트 시인 선집』에 이미지스트들의 6개항 원칙²²⁾을 발표하게 된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이미지즘 이론은 시조혁신론²³⁾

중심이 된 시인들의 시가 이미지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진단하여 쓴 경멸적인 어조
홍은택, 『영미 이미지즘 이론의 한국적 수용 양상』, 『국제어문』제27집, 2003.6, p.157.

19) 김재근, 『이미지즘 연구』, 경일 인쇄소, 1973, p.18.

이미지스트 3원칙 : 파운드를 주축으로 하는 이미지스트들의 주장.

20) 오승희, 『현대시조의 공간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p.5-6.

21) 홍은택, 『영미 이미지즘 이론의 한국적 수용 양상』,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2003, p.47.

22) 김재근, 앞의 책, pp.26-27.

이미지스트 6개항 원칙 : 에이미 로우웰을 중심으로 하는 이미지스트들(후기 이미지즘)이 1913년 파운드가 발표했던 이미지스트 원칙(전기 이미지즘)을 정리한 것임.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 두 이론의 영향관계를 아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 이미지즘 이론'과 시조혁신론의 영향 관계

이미지스트 3원칙 (1913년)	이미지스트 6개항 원칙 (1915년)	시조 개혁론 (1932)
1. 주관적인 것이거나 객관적인 것이거나 대상을 직접 표현 구상(具象)할 것.	제 4항. 심상(心像)을 제시할 것. (이 IM AGE라는 말에서 IMAGIST라는 말이 온 것이다.) 우리들은 화가의 일파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시라는 것이 특수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막연한 보편적인 것을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제 5항. 조각같이 확연하고 눈에 명백히 보이는 시를 지을 것. 명하고 호릿하고 막연한 시를 쓰지 말 것.	1. 실감실정(實感實情)을 찾자 작가 자신의 실생활에서 얻은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실제 느끼고 체험한 사실을 절실한 감정이나 <u>색채가 가득한 감각적 광경을 표현함에 자기의 주관으로써 하는 서정과, 객관적으로써 하는 서정</u> , 어느 것이든지 다 쓸 수 있다.
	제 3항. 주제의 선택을 절대로 자유롭게 할 것. 비행기와 자동차에 대하여 서투르게 쓰는 것은 좋은 예술이 아니다. 과거의 것에 대하여 솜씨 있게 쓰는 것은 반드시 나쁜 예술이 아니다. 우리들은 현대 생활의 예술적 가치를 진심으로 믿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1911년의 비행기처럼 고무적이 못 되고, 또 새로운 분위기를 못 가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싶다.	2. 취재(取材)의 범위를 확장하자 옛시조 가운데에는 그 내용이 서로 비슷 <u>한 것이 많다. 그리하여 그 양으로는 많은 듯하되 그 질로는 적다.</u> 이는 그 취재의 범위가 넓지 못하던 탓이다.
2. 표현 형태에 알맞지 않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제 1항. 일상용어를 사용할 것. 그러나 항상 정확한 말을 사용할 것. 정확에 가깝거나 또 단순히 수식적인 말은 사용하지 말 것.	3. 용어의 수삼(數三 : 選擇) 용어는 몇몇 <u>투어나 한어나 한문구어</u> 따위를 적혀놓고는 한자로 된 말이라도 <u>선알말이라도 다 써야 하고, 또는 새로 자꾸 만들어 내는 말도 써야 함은 물론이다</u>
3. 리듬에 대해서는 연속되는 음악적인 음절로 쓰	제 2항. 새로운 리듬을 지어낼 것 - 새로운 정조의 표현으로서, 낡은 정조를 반영하는 데 지나지 않는 낡은 리듬을 흉내 내지 말 것. 시에 있어서 새로운 운율	4. 격조(格調)의 변화 오늘날부터는 음악으로 보는 시조보다도 문학으로 - 시가로 보는 시조로, 다시 말하면 <u>부르는 시조보다도 짓는 시조</u>

23) 이병기, 『시조는 혁신하자(시조혁신론)』,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71, pp.313-332.

고, 메트로놈 (박절기(拍節器))의 연 속으로 쓰지 말 것.	은 새로운 사상을 뜻하는 것이다.	읽는 시조로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격조도 달라질 것이다. 6. 자유로운 행갈이와 묵독 낭독 시를 짓는 이가 시를 다 지었다고 곧 그 일이 끝난 건 아니다. <u>시를 제 가락에 맞 추어 잘 쓰는 법까지 알고 써야 한다.</u> 비 록 잘 지은 시라도 함부로 되는 대로 쓰 면 제 가락의 의미가 나서지 아니한다. 시라고 별것이 아니다. 우리의 한 생각 을 언어 · 문자를 빌어 지면에 기록하 여 놓은 그것이다. 잘 짓기도 하려니와 쓰기도 잘 하여야 한다.
	제 6항.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대부분은 중점 집중이 시의 바로 본질이라고 믿는 다.	5. 연작 즐겨 쓰기 종래의 시조에는 한 수(首)가 한 편(篇) 이 되게 하여 완전히 한 독립한 생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생활 상은 예전보다도 꽤 복잡하여지고 새 자 극을 많이 받게 됨에 따라, 또한 작자의 성공도 가지가지로 많을 것이다. 그것을 겨우 한 수(首)만으로 표현한다면, 아무 리 그 선을 굵게 하여 하더라도 될 수 없으며, 될 래야 부자연하게 되고 말 것 이니, 자연 그 표현방법을 전개시킬 수 밖에 없다. 한 제목에 대하여 그 시간이 나 위치는 같은 다르든, 다만 그 감정의 통일만 되게 하는 것이다.

<표 1>을 살펴보면 1913년 발표된 ‘이미지스트 3원칙’과 1915년에 발표
한 ‘이미지스트 6개항 원칙’은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비교 분석
할 수 있으며, 가람 이병기의 ‘시조혁신론’은 ‘이미지즘 이론’의 영향을 직
접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시조혁신론 ‘1. 실감실정을 찾자’는 이미지즘 이론 ‘제 4항. 심상(이미지)
을 제시할 것’, ‘제 5항. 명백한 시를 지을 것’에서 왔음을 분석할 수 있다.
즉 가람 이병기는 실감실정을 표현하되 색채 가득한 광경(이미지)으로 표
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조혁신론 ‘2. 취재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이미지즘 이론 ‘제 3항. 주제

의 선택을 절대로 자유롭게 할 것.’의 영향을 받았다. 서로 비슷한 내용이 많은 고시조의 작법을 경계하기 위해 가람 이병기는 주제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시조혁신론 ‘3. 용어의 수습’은 이미지즘 이론 ‘제 1항. 일상용어를 사용할 것.’에서 왔음을 분석할 수 있다. 가람 이병기는 한문투어를 제외하고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등 일상어를 시어로 사용하여 독창적이고 신선한 창작을 중용하고 있다.

시조혁신론 ‘4. 격조의 변화’, ‘6. 자유로운 행간이와 묵독 낭독’ 등은 이미지즘 이론 ‘제 2항. 새로운 리듬을 지어낼 것’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시조는 정형성을 띠고 있지만 낡은 리듬에 매몰되지 않고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가람 이병기는 새로운 시도를 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조혁신론 ‘5. 연작 즐겨 쓰기’는 이미지즘 이론 ‘제 6항. 중점 집중이 시의 바로 본질’에서 영향을 받았다. 가람 이병기는 복잡한 생활상을 노래하기 위해 연작 시조를 쓰지만 감정의 통일이 되도록 시조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인 시조의 3장 형식과 4음보는 그대로 고수하고 있지만 표현방법, 리듬, 주제·소재 선택에 있어서는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전통 시조 양식에 이미지즘 이론을 접목하여 현대 시조를 주창함으로써 근대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장희, 정지용 등이 이미지즘 이론을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가져왔다면 가람 이병기는 고시조를 현대시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조의 형식과 내용 전반에 접목하여 적용시켰다고 볼 수 있다.

Ⅲ. 조운 시조에 나타난 이미지리와 상징 분석

조운은 1925년 5월, 시조 <법성포 12경>을 조선 문단에 발표하면서 시조를 쓰기 시작했다. “일상어를 통해 독자적인 이미지화에 힘썼고 시어의 다양한 창안을 꾀했으며, 시조를 통해 역사의식을 고취시켰다”²⁴⁾ ‘일상어 사용’, ‘이미지화’, ‘시어의 다양한 창안’ 등은 가람 이병기가 고시조의 가상화된 관념세계나 이상화된 공간 지향을 탈피하기 위해 실감실정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며 이러한 실감실정은 시조혁신론의 주요한 요소이며 또한 이미지즘 이론의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조운 시조에 나타난 이미지즘 시적 요소를 고구함으로써 근대기, 현대시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정을 바친 조운 시인의 위치를 재확인할 것이며 조운 시조 작품에 적용된 이미지즘 시적 요소를 밝혀냄으로써 노래 장르에서 문학 장르로 근대시조가 재생되는 과정에 미친 이미지즘 시의 영향을 작품 속에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미지즘 이론을 크게 분류하면 ‘회화’, ‘리듬’, ‘논리(의미)’로 나눌 수 있다. 의미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방법에서 ‘회화성’을 강조했으며 새로운 리듬의 창조를 위해 의미에 바탕을 둔 리듬의 변화를 강조했다. 시조에서는 이 리듬의 변화가 ‘격조의 변화’와 ‘자유로운 행갈이’로 표현되고 있으며 ‘회화성’ 강조 부문은 ‘색채 가득한 실감실정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조운 시조가 나타내는 리듬과 의미의 특징이라면 ‘다양한 배행’과 ‘종장 후구 마지막 음보 생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배행’이란 음보별 배행, 구별, 배행, 장별 배행 등을 이르는 말로 고시조와 변별성을 보이는 부분으로 가람 이병기가 격조의 변화를 위해 시도한 방법이다. 즉 배행을 함에

24) 조운경, 『현대시조의 형성 배경과 형상성-가람과 조운 시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 이론연구』28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p.291.

있어 의미와의 연관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가람 이병기와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종장 후구 마지막 음보 생략’²⁵⁾은 가람 이병기의 이론과는 뜻을 달리 하는 부분으로 시조창 시조의 일반적 종결 방식이며 개화기 시조의 특징이기도 하다.

본장에서는 조운 시조에 나타난 이미지리와 상징을 대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이미지리와 상징은 이미지즘 시에서 중요시 여기는 표현방법인 회화와 의미에 관련된 부분이다. 시조 작품은 1925년부터 1949년까지 조운 시조집에 실린 73편과 미수록 33편을 합하여 총 99편을 대상으로 한다.²⁶⁾

“하나의 문학작품은 한 작가가 지닌 의식의 소산물이고, 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유기적인 조직망에 의해 풍부하게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문학작품 속에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이나 사회적 배경, 시대적 상황 등이 작가의 의식 속에 투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²⁷⁾ 이처럼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이미지라고 한다.

따라서 작품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작품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보다도 시인에게 내재된 ‘영혼의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25) 개화기시조 1900년경부터 1920년대까지 창작된 시조를 말한다. 개화기 시조는 고시조와는 형식상의 차이를 보인다. 첫째 시조마다 반드시 제목이 붙어 있다. 둘째 3장이라는 분장형식보다는 각 장을 2구씩 나눠 점을 찍어 표시하여 6구라는 시적 리듬의 반복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셋째 시조의 종장 마지막 구를 생략하는데, 이는 시조창에 근거를 둔 것으로 단호한 결의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넷째 고시조의 엄격한 종장 규칙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 등장할 현대시조의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국어국문학자료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5933&cid=263&categoryId=1043>, 검색일 2014.6.26.

26) 조운, 앞의 책.

27) 이사라, 『김광균-윤동주시의 상상적 질서』, 『이화여문논집』 제16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 연구소, 1983, p.236.

이미지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미지는 작품의 내면구조로서 “표면적으로 흩어져 있는 요소들을 전체 속에서 조화시키는 구실을 하”²⁸⁾며 또한 “시인이 전달하고 싶은 관명이나 실제 경험 또는 상상적 체험 등을 미학적으로 그리고 호소력 있는 형태로 형상화시키는 중요한 수단”²⁹⁾이 된다.

“이미지란 심리학도 문학연구도 다 같이 취급하는 문제이다. 심리학에선 심상(心象)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시각적일 필요는 없고, 과거의 감각상의 혹은 지각상의 체험을 지적으로 재생한 것, 즉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⁰⁾ 덧붙여 말하면, 가람 이병기가 말한 ‘실감실정’에 의해 나타나는 심상이 이미지가 된다.

그렇다면 이미지란 무엇인가? “언어에 의하여 마음속에 생산된 것을 이미지들’이라고 할 때,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독자의 상상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효과적 수단을 이미지리라고 말할 수 있다.”³¹⁾ 다시 말하면 각각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 모여서 단어군(이미지리)을 형성하고 이 이미지리에 의해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가 상징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미지의 발전 과정을 리처즈(I. A. Richards)는 여섯 단계로 분류해 놓았다.

- ① 생생한 이미지의 제작, 즉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
- ② 비유나 상징적 수법을 써서 이미지를 그리는 것.

28) 김현자, 『시와 상상력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82, p.19.

29) 김준오, 『시론』, 문장사, 1982, p.107.

30) R. Wellek & A. Warren, 백철·김병철 공역, 『문학의 이론』, 서울: 신구문화사, 1959, p.251.

31) 최동호, 『이미지』, 현대문학사편, 『시론』, 현대문학, 1989, pp.49-50.

- ③ 독자에게 특정한 정서적 상태를 다시 일으키게 만들어 주는 것.
- ④ 일상(日常)(보기)에 서로 연관을 지어주는 발명력을 도입시키는 것.
- ⑤ 모순된 것 같은 사물 사이에서 과학적 이미지를 써서 관련 작용을 갖도록 예증시키는 것.
- ⑥ 전혀 반대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성질들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주는 것³²⁾

리처즈의 6단계 이미지의 발전과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운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실감실정을 비유나 상징적 수법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그의 작품 속에 그렸으며 이러한 회화적 이미지의 상징체계로 그의 감정과 사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조운의 일생은 불운했다. “1900년 음력 6월 26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136번지에서 부친 조희섭과 모친 함풍 노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인 함풍노씨는 기방 출신의 소실이며, 본처 김해 김씨와 부친사이에서 난 이복형 문현, 복현이 있고 누이 다섯과 부친 사후에 태어난 핏줄이 다른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다.”³³⁾ “1903년 조운의 나이 4세 때 부친을 별세하고 조운은 더욱 빈궁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했다.”³⁴⁾ 게다가 조운이 살던 시기는 일제강점기라 여러 번 옥고를 치르는 고난을 겪었다. 조운은 1919년 3·1운동에 가담한 후 일경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의 일상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운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에서 오는 내면의 결핍을 자연물을 접하고

32) 임효순, 『김광균론』, 『명지어문학』 제10집, 명지어문학회, 1978, p.148.

33) 윤곤강, 『창조의 동기와 표현-조운 시조를 중심으로 하여』, 『시와 진실』, 정음사, p.181.

34) 김기현, 『조운의 생애와 문학-전기 및 서지의 복원을 위하여』, 『시조학논총』 제6집, 1990.12, p.88.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해소하고자 했다. 조운의 이러한 심상이 작품 속에 이미지리로 형상화되어 있다. 조운 시조에 형상화된 이미지리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이미지리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상징체계도 살펴보기로 한다.

1. 내면 세계 - 결핍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어머니의 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완전한 상태라고 한다.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자신을 반쪽이라고 느끼는 결핍 상태가 지속된다. 아기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반쪽을 찾아 완전체가 되길 욕망한다.”³⁵⁾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결핍을 느끼듯 조운의 일생도 결핍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조운은 “1919년 3월, 기미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젊은 나이에 영광지역의 지도급 인사로 떠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경찰을 피해 만주로 망명, 시베리아와 간도 등지로 방랑생활을 하게 되었다. 방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장녀 옥형이 병사했음을 이국땅에서 전해 듣게 되는 애통함을 겪기도 한다. 1921년 귀향을 하게 되나 일경의 감시와 연이은 투옥”³⁶⁾으로 그의 생활은 불안했다. 따라서 그의 작품 곳곳에서 상징적 결핍이 발견된다. 조운에 있어 결핍은 그리움 이미지리와 애처로움 이미지리로 나타난다.

1) 그리움 이미지리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쉽게 채울 수 없는 결핍은 그의 시조 작품 곳곳에 그리움 이미지리로 나타난다.

35) 박찬부, 『라캉 :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 지성사, 2006, p.183. 참조.

36) 김기현, 『간도시절의 최서해』, 『우리문학연구』1권, 1976.4, pp.100-101.

너도 밤마다
꿈에
나를 본다 하니

오고
가는 길에
만날 법도 하건마는

둘이 다 바쁜 마음에
서로 몰라 보는가

바람아 부지 마라
눈보라 치지 마라

어여쁜 우리 딸의
어리고 연한 꿈이

날 찾아
이 밤을 타고 이백리(二百里)를 온단다.

- <여서(女書)를 받고> 전문³⁷⁾

<여서(女書)를 받고>는 옥고³⁸⁾를 치를 때 쓴 옥중시(獄中詩)이다. 감옥에서 그리움이 가득 담긴 딸³⁹⁾의 편지를 받고 해소할 길 없는 그리움을

37) 조운, 앞의 책, p.99.

38) 김기현, 앞의 논문, p.104.

영광의 군민체육대회(君民體育大會)가 이해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영광·장성·고창·정읍 4개운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 때 베를린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남승룡이 참석, 배일사상(排日思想) 고취연설이 사건으로 비화되어, 같은 해 9월에는 체육대회를 주관한 300여명을 체포하고 구속한 일경(日警)의 날조사건임.

토로한 시이다. 현실적으로 결핍을 해소할 수 없는 그리움이기에 꿈으로 비유되어 상징적으로 이미지가 그려진다. 옥에 갇혀 있는 몸이니 실제로 딸을 찾아 나설 수 없는 현실이다. 어린 딸도 또한 혼자서는 이 백리 먼 길을 달려올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기에 그리움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과 꿈(소망)의 괴리감(모순) 속에 꿈(몽(夢))을 도입시켜 과학적 이미지를 그려낸다. 그리움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어휘인 ‘연한 꿈(몽(夢))’, ‘꿈(소망)’, ‘이백리’, ‘못 만남’, ‘바람’, ‘눈보라’ 등의 이미지군은 가슴 저리도록 다가오는 그리움으로 인해 생겨나는 해소할 수 없는 결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새로 바른 창(窓)을 닫고 수수들을 까는 저녁
 요 빗소리를 철창(鐵窓)에서 또 듣나니
 언제나 등잔불 돋우면서 이런 이약 할까요

- <가을비 - 안해에게>⁴⁰⁾

역시 옥중 생활 중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시조이다. 3연으로 이루어진 <가을비> 는 1연<어머니 생각>, 2연 <안해에게>, 3연 <딸에게>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2연이 <안해에게>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소소했던 일상들도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가을비 - 안해에게>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날 아내와 함께 가을걷이를 한 수수들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까던 일상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그리워지는 심상을 담았다. 옥에 갇혀 마음대로 나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면 수수 까는 일이 그리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여기

39) 여기서 딸은 조운의 전처 소생의 딸로 엄마 없이 자란 딸이기에 애처로움과 그리움은 더욱더 클 것이다.

40) 조운, 앞의 책, p.96.

서 수수 까는 행위는 안해와 함께 했으므로 그리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움의 대상은 ‘수수 까는 일’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아내’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수수 까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이었을지라도 안해와 함께 했더라면 그 역시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가을비 소리의 이미지는 쓸쓸한 심상과 그리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2) 애처로움 이미지리

지난(至難)했던 세월을 산 조운의 일상 곳곳에는 애처로움의 이미지리가 산재해 있다.

창(窓)이나 발라주고 떠나오자 하던 것이
비 개인 밤바람은 몹시도 차고 차다
교포(蛟布)가 눈에 밝히네 어이 갈꼬 어이 가.

- <돌아다 뵈는 길>⁴¹⁾ 2연

<돌아다 뵈는 길>은 1931년 『동광』지 17권에 발표된 작품으로 조운의 나이 32세 때다.⁴²⁾ ‘투옥된 지 삼년 만에 중병으로 보석되어 방 한 칸을 세 얻어 외로이 누워 있는 벗 C군을 찾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차(車) 안에 서’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작품이다. 병든 몸으로 돌봐 줄 가족도 없이 누워 있는 벗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뚫려있는 창’, ‘차가운 밤바람’, ‘눈에 밝히는 교포’등의 이미지군이 자아내는 정황으로 안타까움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저것 챙겨주고 왔건만 오는

41) 조운, 앞의 책, p.67.

42) 김기현, 앞의 논문, p.97.

길에 다시 생각하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다. 뚫려있는 창을 발라주지 못하고 온 것이 잘못이라고 자책한다. 차가운 밤바람이 뚫어진 창문을 통해 들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 벗의 병이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뚫려있는 창’에서 ‘차가운 밤바람’, ‘눈에 밝히는 교포’등의 이미지가 배치되는 시적 화자의 불안한 마음이 고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점강법을 통해 심적 변화의 실감실정을 뚜렷한 영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카를 더부리고
성묘(省墓)하고 오는 길에

해망대(海望臺) 바윗등에
이야기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얼굴을 아느냐?
서로 물어 보았다.

- <성묘(省墓)> 전문⁴³⁾

<성묘>에서 조카는 손아래 누이 분려의 아들이다. 소설가 최서해는 조운의 손아래 누이의 남편이 된다. 1927년(서해의 나이 28세) 2월 15일 서해가 조운의 누이동생 분려와 동대문 밖 조선 문단사에서 문단결혼식을 올려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⁴⁴⁾ 그러나 1932년 7월 9일에 매부 서해가 타계하고⁴⁵⁾ 1935년 6월 9일 누이동생 분려마저 병사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조카는 고아가 된다.

43) 조운, 앞의 책, p.64.

44) 김기현, 『「조선문단」시절의 최서해』, 『우리문학연구』2, 1977.10, pp.39-43.

45) 조운, 『곡(哭) 최서해』, 『동아일보』, 1931.7.20.

<성묘>에는 고아가 된 조카에 대한 애처로움이 시 전체에 나타나 있다. 조카가 아버지 최서해를 여윈 나이는 4살이다. 조운이 자신의 아버지를 여윈 나이도 역시 4살이다. 3연 ‘아버지 얼굴을 아느냐? / 서로 물어 보았다.’ 하는 구절은 동병상련의 아픔이 짙하게 번져오는 구절이다. ‘어린 조카’ 이미지, ‘무덤’ 이미지, ‘해망대’ 이미지, ‘매부의 부재’ 이미지 등의 이미지군은 전체적으로 고아가 된 조카에 대한 안타까움을 상징적으로 자아내어 독자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주제를 일상생활에서 찾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상어를 사용하여 애처로움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지즘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면 세계 - 해소

매슬로우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인간은 긴장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 동기가 작용한다고 주장한다.⁴⁶⁾ 매슬로우의 이론에 의하면 조운의 내면세계에서 느끼는 고통은 주로 안정의 욕구와 애정의 욕구이다. 안정의 욕구란 위협이나 고통으로부터 회피하여 안정을 찾고자 하는 욕구이며 애정의 욕구란 애정, 친화, 소속감을 통해 애정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조운은 위 ‘내면세계’에서 살피본 바와 같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의 일상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는 이러한 생활 속 고통의 해소를 자연물과 유적지에서 찾고 있다.

시조 작품에 이미지를 형상화시킴에 있어 가람 이병기가 자연물의 객관적 사생이었다면 조운은 자연물의 주관적 사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람은 자연물을 묘사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로 서경 그 자

46) 우수명, 『사회복지 욕구 다시보기』, 인간과복지, 2010, p.25. 참조.

체를 그렸다면 조운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서경만을 그리지 않고 서경 이면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서경까지도 입체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조운이 결핍에 대한 해소의 방안으로 그의 시조 작품 속에 도입하였던 자연물 이미지리와 유적지 이미지리에는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손상된 자아(自我)를 치유하고자 하는 외면 세계에 대한 신뢰감이 상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1) 자연물 이미지리

자연물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조운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잡아주는 버팀목으로 그의 작품 속에 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현실의 고달픔을 해소해 주기에 적합한 대상이었다.

천년(千年)에 하루씩만
별밤이 있다 하면

기나긴 겨울밤을
선 채 얼어 굳을 망정

우리러 꼬박 새고도
서오하여 하렸다.

- <별> 전문⁴⁷⁾

<별>에서 별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이상향으로 그리는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적 화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직접적으로 대입한다면 조국의 광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연에서 시적 화

47) 조운, 앞의 책, p.55.

자는 유토피아로 상징되는 별밤을 자주 바라지는 않는다. ‘천 년’이라는 시어를 통해 아주 긴 시간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곧이어 2연에서는 시간에 이어 장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 장소는 선 채 일어 죽을 만큼 추운 겨울밤의 이미지이다. 최악의 환경이다. 3연에서는 시적 화자의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아무리 긴 시간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별밤이 있기만 하다면 그 긴 시간과 어려운 환경도 오히려 가볍게 견디겠다는 절실한 염원이 담겨있다.

조운은 조국 광복의 염원을 별밤 이미지를 통해 풀어낼 수 없었다면 그의 정서는 더욱더 참담했을 것이다. 그러나 밤이면 반짝이는 별밤이 있었기에 그의 염원은 확신으로 점차 바뀌어 갔을 것이며 그 가운데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한 감정 정화를 통해 손상된 자아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투박한 나의 얼굴
두툼한 나의 입술

알알이 붉은 뜻을
내가 어이 이르리까

보소라 입아 보소라
빠개 젓힌
이 가슴.

- <석류(石榴)> 전문⁴⁸⁾

<석류>는 1947년 3월 『연간조선시집』에 발표한 작품이다.⁴⁹⁾ 조운 시조

48) 조운, 앞의 책, p.27.

의 미적 구조와 현대적 특성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석류>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은 가슴에 담은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언어의 한계에 부딪친 시적 화자의 답답한 마음이다. 인간은 가끔 언어의 틀에 갇힐 때가 있다. 그러할 때 비유를 통해 그 한계를 벗어난다. 어눌한 나의 입술로 알아야 영근 붉은 뜻을 전달할 수가 없다. 시인은 답답한 마음을 알맹이가 부풀어 쪼개진 석류를 통해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⁵⁰⁾

‘투박한 나의 얼굴’ 이미지와 ‘두툼한 나의 입술’ 이미지는 ‘알알이 붉은 뜻’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어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시적 화자의 안타까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장이 한 연을 이룬 구조인 세 개의 연 가운데 2연까지 시적 화자의 답답한 마음이 절정을 이루었다가 3연 ‘빠개 젖힌 / 이 가슴’에서 한 순간에 해소됨을 느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카타르시스는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마음의 상처나 콤플렉스를 말·행위·감정으로써 밖으로 발산시켜 노이로제를 치료하려는 정신요법의 일종으로, 정화법·제반응이라고도 한다.”⁵¹⁾ 조운은 억눌린 감정을 자연물인 ‘석류’에 이입하여 농익은 상태에서 저절로 쪼개지는 석류의 속성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즉 석류가 쪼개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부로 표출하지 못했던 억눌린 감정이 간접적으로 발산되면서 감정 정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퍼이어도

퍼이어도 다 못 펴고

49) 문무학, 『조운연구』 『우리말 글』 7권, 1989, p.89.

50) 이솔희, 『현대시조의 시어와 이미지 -『구룡폭포』와 『별안간』을 중심으로』, 『시조21』 29권 2014년 여름호, 2014.6, pp.122-123.

51)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083&cid=40942&categoryId=31505>, 2014, 6, 26.

남은 뜻은

고국이 그리워서나
노상 맘은 감기이고

바듯이 퍼인 잎은
갈갈이 이내 찢어만지고

- <파초> 전문⁵²⁾

조운은 19세 어린 나이로 3·1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그 후 조운은 일경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 감시에 쫓겨 타향을 떠도는 시간이 많았다. <파초>는 타향을 떠도는 가운데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조이다. 시적 화자의 마음이 “파초의 속성이 그려내는 이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린잎일 때 잎이 말려있는 속성을 시인은 자나 깨나 떨칠 수 없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감겨있다고 비유했다. 자라면서 잎이 펼쳐지긴 하지만 이내 찢어지고 마는 속성은 고향에 대한 염려를 떨칠 수 없는 시적 화자의 심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³⁾

위 ‘내면 세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운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가운데 특히, ‘애정의 욕구’를 많이 느끼고 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생각을 알아주는 ‘소속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자연물 ‘파초’이다. 말려있는 잎이나 찢어지는 잎의 속성은 자나 깨나 지울 수 없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파초가 그려내는 조운의 심상이기 때문이다.

52) 조운, 앞의 책, p.32.

53) 이솔희, 앞의 책, pp.123-124.

2) 유적지 이미지리

3·1운동을 전후하여 우리문학은 자아에 대한 각성과 함께 민족의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 문학적 시야를 확대시켜 나아갔다. 특히 “조선역사에 대한 연구는 곧 조선정신을 탐구하는 것이며, 조선의 국토를 순례하는 것은 조선정신의 구체적 표상을 만나는 것이⁵⁴⁾라 하여 민족주의를 표방한 대부분의 문인들은 국토 순례를 하는 가운데 유적지를 소재로 한 작품을 썼다. 조운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운은 유적지 이미지리를 통해 조선정신을 탐구하고 민족 미래에 대한 확신을 통해 그간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했다.

벽파정(碧波亭)이 어디메오

울퉁목 여기로다

당년(當年)에 못다 편 뜻

상기도 남아 있어

오늘도 워리렁충청

울며 돌아 가누나.

- <수영(水營) 울퉁목>⁵⁵⁾

<수영(水營) 울퉁목>은 1931년 1월 『동아일보』에 『충무공추모』로 실은 작품⁵⁶⁾을 개작하여 『조운시조집』⁵⁷⁾에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벽파정’은 전라도 진도에 있던 정자 이름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명량대첩

54) 최남선, 『육당 최남선전집』8, 현암사, 1973, pp.259-260.

55) 조운, 앞의 책, p.18.

56) 문무학, 앞의 논문, p.89.

57) 조운, 『조운시조집』, 조선사, 1947.

을 거둔 곳으로 유명하다. ‘울똥목’은 현재 진도 대교를 흐르는 해협으로 일명 명랑해협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물살이 빨라서 이순신은 빠른 물살을 이용하여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고 한다. ‘당년에 못다 편 뜻’은 이순신 장군의 호국의 의지를 상징한다.

이 시조는 문답법으로 시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1연과 2연에서 ‘벽과 정’ 이미지, ‘울똥목’ 이미지를 제시하여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의 쾌거를 상징하고 있다. 이어서 3연에서는 적의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조국의 안위를 걱정했던 이순신 장군의 충정이 물살처럼 흐르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세차게 흘러가는 물살 이미지는 이순신 장군의 충정을 상징하고 있다. 아울러 시적 화자의 조국 충정의 의지가 겹쳐져 입체적 상징을 도출하고 있다. 2연에서 나타난 입체적 상징은 3연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3연에 배치한 ‘위리령충청’⁵⁸⁾은 리듬을 맞추기 위한 허사로 별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위리령충청’이 가지는 이미지는 뒤에 배치한 ‘울며 돌아가는’ 물살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흥겨움을 느끼게 한다. 즉 시적 화자는 현실의 어려움을 역사적 유적지에서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선죽교(善竹橋) 선죽교러니 발남짓한 돌다리야
실개천 여원 물은 버들잎에 덮였고나
오백년 이 저 세월이 예서 지고 새다니.

피니 돌무너니 물어 무엇 하자느냐
돌이 모래되면 충신을 잊겠느냐
마음에 스며든 피야 오백년만 가겠니.

58) ‘위리령 충청’은 판소리 <춘향전>(김초향·김소향, 1931.)중 ‘이별가’에 나오는 대목이다.

포은(圃隱)만한 의열(義烈)로서 홀린 피가 저럴진대
 나보기 전(前) 일이야 내 모른다 하더라도
 이마적 홀린 피들만 해도 발목지지 발목져.

- <선죽교(善竹橋)>⁵⁹⁾

<선죽교>는 1934년 9월 『중앙』11권에 발표된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인 바, 그간 여러 사람의 호평(好評)을 받아왔다.⁶⁰⁾ 3연으로 된 연시조에서 조운이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주제는 포은의 의열(義烈)에 결코 뒤지지 않는 일제치하 의인들의 조국에 대한 충정이다.

1연에서 ‘선죽교’ 이미지, ‘머들잎에 덮인 실개천’ 이미지, ‘오백년 세월’ 이미지를 제시하여 세월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2연에서는 ‘충신의 일편단심’ 이미지를 1연과 대비(對比)하여 배치함으로써 자연의 변화를 뛰어 넘어 불변하는 포은의 충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흐르는 세월 따라 삼라만상이 변하지만 충신의 충정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연에서는 이마적(현재) 일제 치하에서 피 흘리는 열사(烈士)들의 충정은 결코 포은의 의열(義烈)에 뒤지지 않음에 충만해하는 시적 화자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1연에서 세월의 무상함, 2연에서 무상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포은의 충정, 3연에서는 포은의 충정을 뛰어넘는 현 시대 열사들에 대한 찬양의 순서로 시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점강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운은 시조 작품 <별>에서 ‘천년에 하루씩만 / 별밤이 있다’ 해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내겠다고 노래했다. <선죽교>에서는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포은의 일편단심에 힘입어 확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59) 조운,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 - 구룡폭포』, 태학사, 2000, p.109.

60) 김기현, 앞의 논문, p.101.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지즘 이론 제 4항과 제 3항에서 ‘명백한 심상(이미지) 제시’를 주장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가람 이병기는 시조혁신론 1항에서 실감실정을 표현하되 색채가 가득한 감각적 광경으로 표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시조혁신론을 통해 이미지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조운은 본 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작품에서 이미지즘 시의 요소를 구현하고 있었다. 조운의 시조 작품을 내면세계와 외면세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내면세계는 가난한 가정생활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불운이 가져온 결핍의 상징적 심상이 그리움 이미지리, 애처로움 이미지리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외면 세계는 결핍의 심상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연물 이미지리, 유적지 이미지리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리움’과 ‘애처로움’으로 나타난 내면의 ‘결핍’을 ‘여서(女書)’, ‘가을비’, ‘중병에 걸린 벗 C군’ 등의 명백한 이미지를 통해 구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이미지리로 자연물 이미지리는 ‘파초’, ‘석류’, ‘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었으며 유적지 이미지리는 이순신 장군의 쾌거인 명량대첩을 상기시키는 ‘울퉁목’ 이미지와 정몽주의 충정으로 대변되는 ‘선죽교 혈흔’ 이미지 등으로 작품 속에서 명백하고 확연한 회화성을 구현하고 있었다.

따라서 1920년대와 1930년대 한국에 들어온 이미지즘 이론을 가람 이병기가 수용하여 시조혁신론을 주창하여 현대시조 작법의 이론을 체계화했다면 조운은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적 미적 구조를 작품 속에서 형상화하여 현대시조가 이미지즘 시조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였음을 논증할 수 있었다.

IV. 결론

지금까지 조운 시조 작품에 형상화되어 있는 이미지즘 시적 특성 연구를 통해 이미지즘 이론과 현대시조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현대시조가 문학 장르로 정착되는데 조운이 끼친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미지즘은 1909년부터 1917년까지에 이르는 미국과 영국의 젊은 시인들의 새로운 시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한국에 들어와 현대시조 작법인 시조혁신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II장에서 살펴보았다.

가람 이병기가 현대시조의 이론을 체계화했다면 조운은 현대시조가 문학 장르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학의 미적 구조를 작품 속에 형상화하였다. 미적 구조를 형상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은 이미지즘 이론 요소인 서경과 서정의 이미지저리를 통한 상징화였다.

조운의 시조 작품의 이미지저리를 분석하기 위해 조운의 작품을 내면세계와 외면세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운을 둘러싸고 있는 가난과 병마로 인한 가정적 불행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불운으로 인해 내면세계는 결핍의 상징체계로 나타나고 있었다. 결핍으로 점철된 심상은 그리움 이미지저리, 애처로움 이미지저리로 조운의 시조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운의 작품이 결핍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연물 이미지저리와 유적지 이미지저리는 그의 결핍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했으며 그러한 상징체계가 외면세계의 형태로 시조작품에 형상화되어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유적지 이미지저리는 일제강점기였던 그 당시 조선 정신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표상이기도 했다.

이미지즘 시 운동에 관계한 시인들은 수로서는 많지 않았으나, 그들의

시와 시론이 일반 지식층이나 작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큰 것이다. 글렌 휴우즈는 이미지즘은 라파엘 전파의 예술 운동 이래로 영시에 있어서 가장 잘 조직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운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고시조에서 현대시조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미지즘의 영향관계를 밝히는 것은 현대시조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며 시조문학사의 흐름을 명료하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운의 시조 작품에 형상화된 이미지즘 시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회화성 위주에 치중했으며 음악성과 논리성 연구의 미흡함이 아쉬운 점이다. 또한 현대시조에 이미지즘 시가 끼친 영향력을 논증하는 데 있어 조운의 시조 작품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현대시조 작가의 작품 분석을 통해 현대시조 발전에 미친 이미지즘 이론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넘기며 본 논의를 마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조 운,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 - 구룡폭포』, 태학사, 2000.

2. 논문 및 단행본

- 김기현, 「조운의 생애와 문학-전기 및 서지의 복원을 위하여」, 『시조학논총』 제6집, 1990. 12, p.88.
- _____, 「『조선문단』시절의 최서해」, 『우리문학연구』2, 1977. 10, pp.100-101.
- _____, 「간도시절의 최서해」, 『우리문학연구』1권, 1976, p.88.
- 김두삼, 「현대시조의 정체성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양수, 「이미지즘과 모더니즘 그리고 한국의 현대시」, 『낙강』42호, 영남 시조문화회 2008. 12, p.68.
- 김영익, 「백석 시문학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8, pp.10-11.
- 김재근, 『이미지즘연구』, 정음사, 1973, p.10. p.18.
- 김준오, 『시론』, 문장사, 1982, p.107.
- 김현자, 『시와 상상력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82, p.19.
- 문무학, 「조운론」, 『현대시조』1990 봄호 통권 28호, pp.109-111.
- 박찬부, 「라캉 :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 지성사, 2006, p.183. 참조
- 소래섭, 「조운 시조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9집, 2001. 6, pp.235-158.
- 오문석, 「이미지즘과 동양담론」, 『인문학연구』37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pp.35-56.
- 오승희, 「가람 이병기 시조의 공간 연구」, 『비평문학』제4호, 1990. 9, p.331.
- _____, 「현대시조의 공간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p.5-6.
- 우수명, 「사회복지 욕구 다시보기」, 인간과복지, 2010, p.25. 참조
- 우은진, 「조운과 1920년대 현대시조의 형성」, 『한국민족문화』40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7.
- 윤곤강, 「창조의 동기와 표현-조운 시조를 중심으로 하여」, 『시와 진실』, 정음사, 1948, pp.181-184.
- 이병기, 「시조란 무엇인가」, 『동아일보』, 1926. 11. 24.
- _____, 「시조감상과 작법」,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71, pp.309-310.

- _____, 『시조는 혁신하자』,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71, pp.313-332.
- 이슬희, 『현대시조의 시어와 이미지 - 『구룡폭포』와 『별안간』을 중심으로』, 『시조21』 29권 2014년 여름호, 2014. 6, pp.122-123.
- 이은자, 『조운 시조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사라, 『김광균-윤동주의의 상상적 질서』, 『이화어문논집』, 제16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 연구소, 1983, p.236.
- 이지엽 외 1, 『조운 시조에 나타난 형식 미학』, 『비평문학』51권, 한국비평문학회, 2014, p.3.
- 이 철, 『에즈라 파운드의 이미지즘 연구』, 『영어영문학』, 1996.
- 임선묵, 『근대시조집의 양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3, p.114.
- 임효순, 『김광균론』, 명지어문학회, 『명지어문학』, 제10집, 1978, p.14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88, p.282.
- 조 운, 『법성포12경』, 『조선문단』 8권, 1925. 5.
- _____, 『곡(哭) 최서해』, 『동아일보』, 1931. 7. 20.
- 조운경, 『현대시조의 형성 배경과 형상성-가람과 조운 시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28권, 2006, p.291.
- 차승기, 『근대문학에서의 전통 형식 재생의 문제 - 1920년대 시조부흥론을 중심으로 -』, 『상허학보』17권, 상허학회, 2006, p.10.
- 최남선, 『육당 최남선전집』8, 현암사, 1973, pp.259-260.
- 최동호, 『이미지』, 현대문학사편, 『시론』, 현대문학, 1989, pp.49-50.
- 홍은택, 『영미 이미지즘 이론의 한국적 수용 양상』,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2003. 6, p.157.
- R. Wellek & A. Warren, 백철·김병철 공역, 『문학의 이론』, 서울: 신구문화사, 1959, p.251.

Abstract

A Study on Poetic Characteristics in Imagism Embodied in Jo Un's Sijo

Lee, Soo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etic characteristics in imagism of having been embodied in Jo Un's Sijo. Jo Un is selected as a pioneer in modern Sijo along with Garam Lee Byeong-gi. In the process of reproducing old Sijo that had been tune, Garam Lee Byeong-gi systematized a theory of modern Sijo by introducing a theory of Anglo-American imagism in the 1920s ~1930s. Jo Un achieved the aesthetic embodiment in a work based on the theory.

The theory of imagism can be summarized as the vivid image of containing complex sense, and as a change in rhythm of having a meaning in mind. Jo Un attempted a change in tone in order to pursue a change in rhythm in his work, resulting in having been shown to be a pursuit for diverse poetic forms. The lack of life was symbolized by embodying it with the longing imagery and the miserable imagery in the inner world based on the actual feeling and state(實感實情) for seeking the clear image. It could be analyzed to symbolize the resolution of lack by embodying it with the natural imagery and the historic-site imagery.

Key Word : Jo Un's Sijo, Imagism, Change in tone, Actual feeling and state(實感實情), Imagery, Symbol

이순희

소속 : 경북대학교 강사

주소 : (702-866)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4길 61 이지예 아파트 102동 302호

전화번호 : 010-8218-5253

전자우편 : sunzzang9321@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